

환경보전의 천도교

1. 머리말

바야흐로 환경보전 문제는 인류의 지상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자연환경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땅과 물과 공기가 날이 갈수록 오염의 도를 더해 가고 있고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근심하기에 이르렀다.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기가 부패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흙이 썩고 산성비를 염려하게 되고 실로 모든 생물과 더불어 인류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근심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을 떠나 살수 없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인류는 너무 물질문명만을 추구하던 나머지 대자연의 은덕을 망각하고 인간의 근본과 진리를 모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치기운이요 하나의 생명체임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대립된 관계인줄 알고 살아온 것 같다.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자연환경 파괴를 가져온 근본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환경보전은 어느 특정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임임을 알고 다같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지상과제가 아닐수 없다.



임운길 / 천도교중앙총부 총무원장

66 세상이 사람들이 三敬사상을 철저히 인식하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이며 과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며 더더욱 핵무기는 쓰지 못할 것이다. 77

정치인은 정치로 종교인은 종교적으로 과학자는 과학으로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농민은 농토에서 노동자는 일터에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위치에서 환경을 정화 보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선 모든 사람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와 실천운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행이 지금 세계각국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국제회의를 개최 하는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지식도 이제는 풍부해졌다고 본다.

요는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각과 분발을 일으킬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과 실천운동이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천도교는 人乃天을 종지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지상천국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새종교로서 인간이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밝혀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2. 스승님의 말씀

필자는 천도교 경전에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면서 실천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天地父母 一體說

천도교 제2세교조 해월신사(崔時亨선생)께서는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일체라」하시고 또 「천지는 만물의 부모라」하시면서 사람은 마땅히 천지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었다.

그리고 「땅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고 하시었다.

세상사람들이 천지가 부모인줄을 분명히 알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환경보전은 저절로 되어지리라 생각 된다.

둘째 생명존중사상

천도교는 우주만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東學을 창도한 수운대신사(崔濟愚선생)께서는 우주본체를 “至氣”라고 하시었다.

지기는 한울님의 지극한 기운을 말한다. 천지만물은 한울님의 영기인 지기로 화생되었고 지기로 살고 지기로 돌아간다. 지기는 대우주의 대정신 대생명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생명이 하나요 뿌리가 하나임을 알수 있다. 한나무에 열린 열매와 같다. 그래서 「人吾同胞 物吾同胞」라고 하는 것이다.

우주만유가 한울님의 至氣로 화생 되었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생명의 존엄성을 알 것이며 환경보전은 잘 되어 지리라 생각 된다.

세째 三敬思想

해월신사 법설에 敬天, 敬人, 敬物의 三敬설이 있다. 한울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은덕으로 태어나 살고 있으니 만큼 마땅히 한울님을 공경해야 하고 마음을 공경 하는것이 바로 한울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하시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의 이치기운으로 태어났고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사람이 곧 한울이요 따라서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물건과 천지 자연도 侍天主 아님이 없으니 물건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三敬사상을 철저히 인식하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이며 과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며 더더욱 핵무기는 쓰지 못할 것이다.

敬天, 敬人, 敬物의 三敬사상에 도덕사회건설과 환경보전의 길이 있다고 본다.

넷째 대기오염과 정신개혁

대기오염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람은 공기를 마셔야 사는데 공기가 썩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와 행정과 과학기술 기타 모든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것이다.

특히 종교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천도교 경전에 「사람의 몸에 있는 이치기운이 바르면 천지의 이치 기운도 바르고 사람의 몸에 있는 이치 기운이 바르지 못하면 천지의 이치 기운도 바르지 못하느니라...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大氣가 번복 할때 살기를 도모하는 좋은 방법은 以身換性으로 정신을 개혁하는것이라고 하시었다.

이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면 우리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신앙과 수련으로 天心을 회복하고 마음을 깨끗히 하는것이 대기오염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 환경보전 실천방향

1) 교 육

먼저 대대적인 국민 계몽교육이 있어야 할것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등을 총동원해야 할것이며 종교행사 강연회 세미나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2) 제도개선

국가 환경보전 기구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환경에 대한 법제정, 행정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장·단기 계획수립과 추진 그리고, 환경의 날 또는 기간을 설정하는등 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3) 기술개발

오물처리, 쓰레기, 재활용, 대기오염방지, 수질보전등 환경보전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4) 오물수거 운동

모든 사람이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할것이며 오물수거운동을 적극 떠나가야 할 것이다.

5) 비핵화 운동

원자력은 평화산업으로 활용해야 할것이며 핵무기 개발이나 사용은 절대 엄금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협약, 감시기구 설치운영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6) 나무심기 운동

나무와 화초는 환경정화, 대기오염방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 나무와 화초 심기운동을 떠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4월 5일(식목일)은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자전거 타기운동

최근 자동차의 물결로 도시환경의 복잡과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자동차 줄이기와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새마음 갖기 운동

새마음 갖기운동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의지와 도덕성 회복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수련, 명상, 강연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다 새롭고 명랑하게 갖도록 힘써야 할것이다.

9) 주인의식 고취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오염 또는 파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묵인 방관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고발하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10) 기 타

이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작품모집, 백일장, 유공자 포상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할것이다.